



교통카드, 이거 없을 땐 어떻게 살았어?

토큰과 회수권을 들고 다녀야했던 때를 생각해보라
교통카드시스템, 특히 후불제가 주는 이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한 여성이 투피스 치마 정장에 8센티미터 하이힐을 신고 열심히 달린다.
"헉~ 헉~ 헉~ 아저씨 좀 멈춰줘, 헉~헉~ 힘들다니까 헉~헉~ 어휴 정말, 그만 쏙 서란 말이야~!" 짜증스레 혼잣말을 내뱉으며 달리는 멧쟁이 신입사원 예 민혜다.

매일 광역버스 두 번에 마을버스 한 번을 갈아타고 출퇴근 하는 불쌍한 처지인데다 버스 정류장의 위치가 도로 한 가운데로 바뀐 뒤, 출퇴근 길 인파를 수용하기엔 그리 넓지 못한 버스 정류장에서 그 인파를 밀치고 뛰어가 일자로 정차하는 버스에 오르기 위해서는,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는 과연 전쟁을 불사하는 노력을 들여야 한다. 그것도 매일.

여의도에 있는 회사까지 출퇴근에만 몇 시간씩을 써야하는 예 민혜, 오늘은 유난히 힘들었던지 어제의 달리 뜰게 상기된 얼굴로 출근했다.

"버스요금 오르고 나서, 정말 이견 버스인지 택시인지 분간이 안 돼."라며 계속 투덜댄다. 영문을 몰라 멧하니 예 민혜를 쳐다보던 표 대리가 무슨 일이 있다고 묻자, 예 민혜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며 얘기를 꺼낸다.

"제가 용인에 살잖아요. 거기서 회사까지 오려면 광역버스 두 번에 마을버스 한 번을 타요. 물론 좌석버스죠. 근데 조금 늦게 나오거나, 줄을 잘못 서면 좌석 요금을 내고도 장시간 서서 와요. 힘들고 돈도 아깝고... 그것 뿐 인가요? 교통카드가 서울에서만 환승할인이 되고 경기도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교통비도 너무 많이 들고, 너무 짜증이나요." 예 민혜의 말에 표 대리가 알았다는 듯 웃으며 말을 한다.

"민혜 씨는 뉴스도 안 보나봐. 교통카드 환승 할인이 서울하고 경기도 하고 왜 안 돼? 얼마 전부

터 환승할인이 된다고 뉴스 보도까지 있었는데... 아직은 전국 모든 곳이 다 연계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머지않아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 어디에서든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거고 차차 환승할인도 물론 가능해진다고 하던걸." 표 대리의 말을 들은 차 대리가 물의 대화에 끼어 든다.

"교통카드 환승할인도 중요하겠지만 너 중요한 건 그게 가능하도록 해주는 [교통카드용 카드인식시스템] 이라고 할 수 있지. 그게 표준화가 되니까 어디서든지 어떤 형태의 교통카드를 대어도 인식도 하고 환승할인도 가능한 거지."



예전을 생각해봐. 지하철 요금 따로, 버스타려고 토큰이나 동전 따로 준비하고 나뉘잖아. 후불제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하나만 있으면, 비스돈 지하철이든 이용하며 어디든지 다닐 수 있게 될 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너구나 앞으로는 고속도로 이용료까지 지불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니 더욱 뿌리해지지 않겠어?"



교통카드용 카드인식 시스템 표준화와 교통카드 규격 표준화로 인해 대중교통 및 자가용을 이용하는 국민의 교통생활은 점점 더 편리해질 것이다

차 대리가 예 민혜를 쳐다보며 말을 계속한다. "그런데 민혜씨는 수도권 환승할인 되는 걸 정말 모르고 있었어? 얼마 전부터 경기도 내에서도 환승할인 되요. 아 참, 그런데 민혜씨. 이 얘기 들으면 서운하다고 하겠지만 말이야, 광역버스는 어떤 교통수단과도 환승할인이 안된대요..."

[표준 TIP]

표준화로 가능해진 교통카드 시스템

교통카드가 전국적으로 호환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용 '카드인식시스템 (SAM : Secure Application Module)'에 대한 KS표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최근까지는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인천 등 지역별로 서로 다른 SAM을 적용해 한 지역의 교통카드를 타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 카드인식시스템의 KS표준으로 인해 전국 호환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 기술표준 2009. 7



일상의 미스터리, 첫째 주(週)/요일 구분법

‘날짜 및 시각 표기’ 표준



"오늘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갑니다. 눈이 오건 비가 오건,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있던 없든 말이죠. 그러다 하루, 일주일, 한 달 이 훌쩍 지나가버려 깜짝 놀란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되뇌이곤 합니다. "그래,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다음 주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건 정확히 언제부터를 의미하는 걸까요?

한 주의 시작은 당연히 월요일인데 무슨 말이나며 의문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월요일이 한 주의 첫 날이라는 정서가 지배적이니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로 보느냐 일요일로 보느냐는 나라마다 달라서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볼까요?

〈한·미·영 3국의 '월요일'에 대한 사전적 정의〉

	영국	미국	우리나라
Monday:		MONDAY:	
The first day of the week		The second day of the week	월요일 (月曜日): 한 주(週)가 시작하는
월요일: 한 주의 첫 번째 날		월요일: 한 주의 두 번째 날	기초로 보는 날
출처	Longman Dictionary	Webster's Dictionary	국립국어원

한 주의 시작을 일요일로 보는 국가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교, 기독교에서 토요일은 휴식을 취하고 예배를 보는 한 주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리적, 문화적인 차이로 한 주의 시작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영어권 국가에서는 한 주의 첫 날을 일요일로, 유럽·남미·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월요일을 한 주의 첫 날로 여기지요.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 일요일?〉



도대체 뭐가 맞는 지 헷갈리신다고요? 이러한 경우에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표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표준(KS) 중 하나인 '날짜 및 시각의 표기 표준(분류번호: KS A 5402)'은 주(週)의 결정 및 표기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날짜 및 시각의 표기' 표준에 따르면 한 주의 첫 날은 월요일입니다. 이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 제정한 국제표준 ISO 8601(날짜 및 시각의 표기)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있는 세계 공통의 약속이지요.

■ '날짜 및 시각의 표기'은 한 주(週)의 '첫 번째 요일' 뿐만 아니라 한 해의 '첫 번째 주'와 '주간 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주'는 다음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지요. 하지만 종종 명확하게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어 혼동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2008년 첫째 주 화제의 책! 3월 첫째 주 휘발유 값, 매 달 첫째 주 토요일의 모임...』

가령 다음의 경우, 2월 1일은 2월의 첫째 주일까요, 아니면 1월의 마지막 주일까요?

(2008년 2월 달력)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얼핏 보면 2월 1일은 2월 중 하루이므로 당연히 2월의 첫째 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1주일 중 절반 이상인 4일(28일~31일)이 1월의 날짜입니다. 2월의 한 주로 보기에 조금은 부러가 있는 부분이지요.

'날짜 및 시각의 표기' 표준은 매 월의 첫째 주

또는 마지막 주를 구분하는 기준을 '이달 월의 날짜가 그 주간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가'로 봅니다.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 2월 1일이 속한 주는 1월의 날짜가 총 4일(28일~31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1월의 마지막 주가 되는 것입니다.

(2008년 2월 1일 = 2008년 1월 5주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당주간
28	29	30	31	1	2	3	1월 5주
4	5	6	7	8	9	10	2월 1주
11	12	13	14	15	16	17	2월 2주
18	19	20	21	22	23	24	2월 3주
25	26	27	28	29			2월 4주

'날짜 및 시각의 표기' 표준에 따라 주간을 구분하다보면 종종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새해의 첫 며칠이 안고 보니 지난해의 마지막 수가 되는 경우가 그 것이죠.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2000년의 1월 1일과 1월 2일은 2000년의 첫째 주가 아니라 1999년의 마지막 주(52주)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의 첫째 주는 1월 3일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주간수 세는 방법의 예: 2000년 12월 달력)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간 수
		1	2	3	4	5	48주
6	7	8	9	10	11	12	49주
13	14	15	16	17	18	19	50주
20	21	22	23	24	25	26	51주
27	28	29	30	31			52주
3	4	5	6	7	8	9	1주

을 2008년도 벌써 3개월이나 흘렸습니다. 연초에 세워두었던 여러 가지 계획 중 아직 시작하지 못한 게 있으시다면 4월 첫째 주의 첫 날(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참고로, '날짜 및 시각의 표기' 표준을 적용하면 2008년 4월 첫째 주는 3월 31일부터입니다.

'날짜 및 시각의 표기' 표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www.standard.go.kr)에서 'KS X ISO 8601' 또는 '날짜'를 검색하시면 관련 KS 규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